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5]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2. 11. 30 | 발행인 : 민무숙

제주지역 부모의 자녀체벌 인식과 시사점¹⁾

손 태 주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생애초기에 부모가 부모로서 적절한 양육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 전통사회와 달리 맞벌이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미혼부모가족 등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임. 따라서 그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가족형태에 따른 적절한 양육과 훈육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호 존중하는 가족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양육역량을 돕는 부모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특히 2021년 1월 민법 제915호(징계권)가 폐지되었음. 부모의 징계권 조항의 폐지가 삭제된 현실은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 시키던 과거의 양육방식을 부모와 자녀 간 상호존중의 관계로의 새로운 양육방식 방향을 반영하는 것임.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4대 권리에 따른 입장에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어도 또한 정부의 정책 변화 노력에도 최근 아동학대 등 양육책임의 부재에 따른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정책이 지향하는 현실이 아직도 우리의 현실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함

1) 본 내용은 본원 보고서 「제주지역 부모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손태주, 2022)에서 재분석·정리함. 본 보고서에
서의 '부모'는 가족정책의 방향에 맞춰 (손)자녀를 키우는 (조)부모 및 양육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 제주의 경우 아동학대 재학대율이 2019년 12.1%에서 2021년 12.7%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전국 평균(2019년 11.4%; 2020년 1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2022), 자녀양육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부모에 대하여 아동을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영유아에서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이들 자녀의 양육 및 체벌에 대한 인식과 부모교육 지원 요구에 관해 설문조사를, 그리고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어려움과 문제점, 필요한 지원 요구 등에 관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를 토대로 비폭력 긍정양육 문화 조성 과 상호 존중의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제주지역에서의 부모교육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2. 부모교육 요구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본 제주지역 부모의 자녀체벌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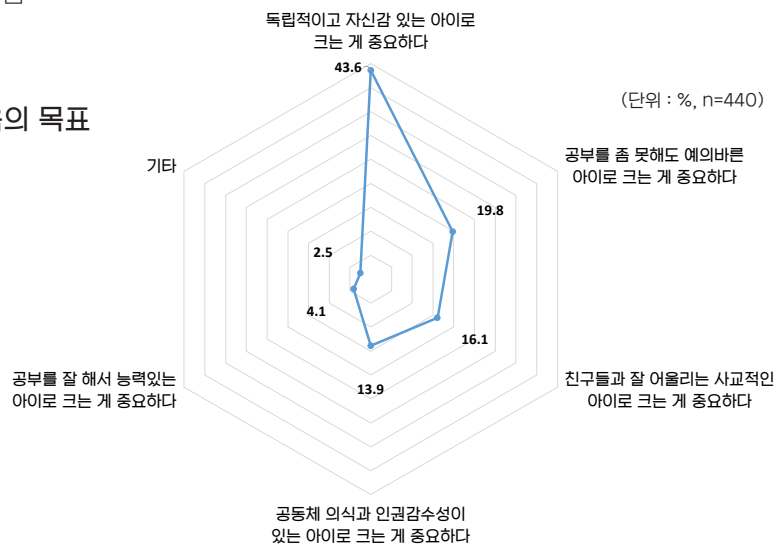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조사대상 : 영유아 및 학령기 부모 440명
- ▶ 일반적 특성
 - 30~40대(55.0%)가 가장 많았고, 이들 대부분이 부부와 자녀(87.0%)로 구성된 가족형태임.
 - 가구특성별 다문화가족은 11.1%, 한부모 가족 5.7%, 장애 가족 2.5% 순이었음.
 - 맞벌이 여부별 맞벌이 가족은 70.7%, 외벌이는 29.3%이고, 자녀의 연령대별(복수응답, 총582명)로는 중고등 45.5%, 영유아 44.5%, 초등 42.3% 순으로 나타남.
 - 주 양육자는 어머니(88.2%)의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현재 양육 수행의 정도는 3.57점(5점 기준)으로 중간수준보다 높게 나타남

■ 현재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교육의 목표

- 조사대상 부모들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아이’(43.6%), ‘예의바른 아이’(19.8%), ‘사교적인 아이’(16.1%), ‘공동체 의식과 인권감수성이 있는 아이’(13.9%) 순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한 자녀교육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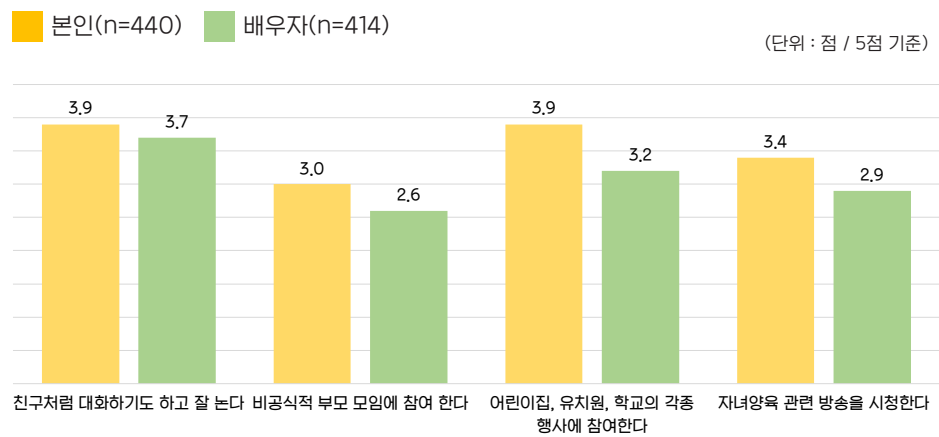
[그림 1] 자녀교육의 목표



■ 평소 생활 속에서의 양육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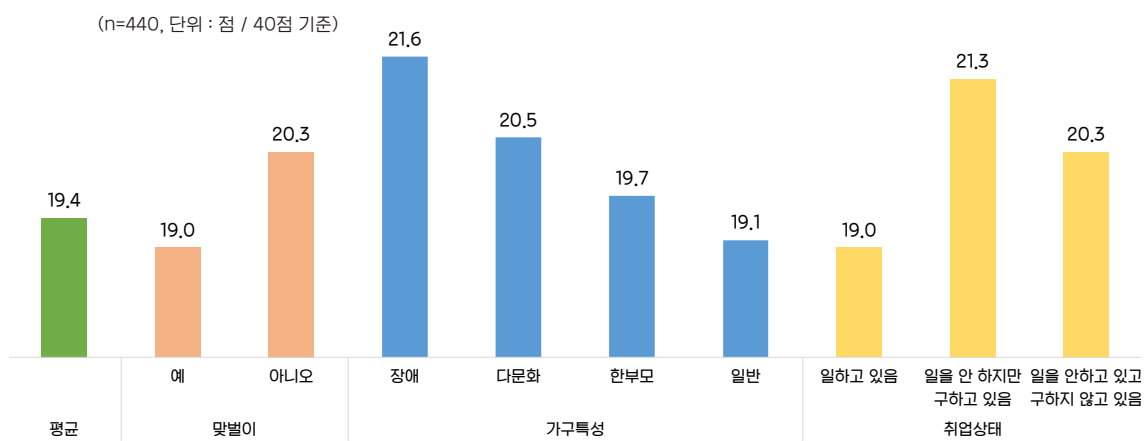
- 조사대상 부모들은 실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잘 논다’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각 3.9점), ‘자녀양육 관련 방송을 시청한다’(3.4점) 순으로 평소 생활 속에서 자녀양육을 위하여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남(5점 기준)

[그림 2] 생활 속에서의 양육실천



-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 조사대상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²⁾ 는 총합 평균 19.4점으로 40점 최고점 기준에서 중간보다 약간 낮게 조사됨. 외벌이 집단(20.3점)일수록, 장애가구 집단일수록(21.6점), 일을 구하고 있는 집단(21.3점)일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정도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즉,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외벌이 집단과 장애가구와 다문화가구 등의 취약가구일수록, 일을 구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게 조사됨

[그림 3]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2) 부모양육스트레스 척도는 정경미 외(2019)에서 사용한 척도를 활용함. 총 8문항으로 문항에 제시하는 양육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이고, 양육스트레스의 점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40점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함



● 부모의 양육실천과 양육스트레스

- 조사대상 부모들의 양육실천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결과, 양육실천 관련 4개의 하위요인 중에서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잘 논다’ 요인만이 양육스트레스에 19.8%($R^2=0.198$)의 설명력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t=-9.496$, $p<.001$)
- 즉, 자녀와의 관계에서 함께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잘 놀 수 있는 심리·정서적 환경이 조성된 가정의 부모일수록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낮을 것으로 예측됨

표 1 양육실천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영향 관계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표준오차 | β | t값 |
|--------|--|-------|----------|--------|
| 양육스트레스 | 상수 | 1,463 | | 21,873 |
| | 친구처럼 대화하기도 하고 잘 논다 | 0,345 | -0,440** | -9,496 |
| | 비공식적 부모 모임에 참여한다 | 0,234 | -0,041 | -0,856 |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 0,283 | 0,046 | 0,929 |
| | 자녀양육 관련 방송을 시청한다 | 0,258 | -0,014 | -0,311 |
| | $R^2=0.198$, $F=26,799$, $p=0.000$, Durbin-Watson=1,81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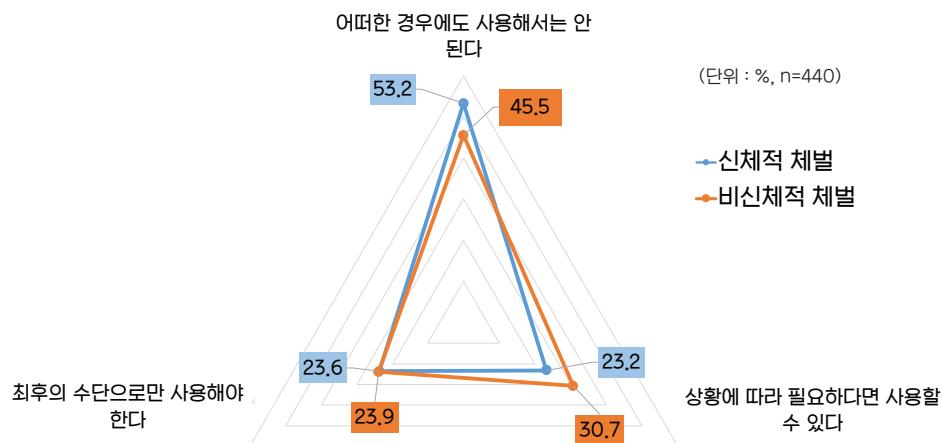
주 1. *** $p<.001$

주 2.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체벌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신체적 체벌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53.2%),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23.6%),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23.2%) 순으로 나타남
- 비신체적 체벌(내쫓기, 고함치기 등)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45.5%),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3.1%),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23.9%) 순으로 조사됨
- 즉, 부모들은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체벌(비신체적 30.7%, 신체적 23.2%)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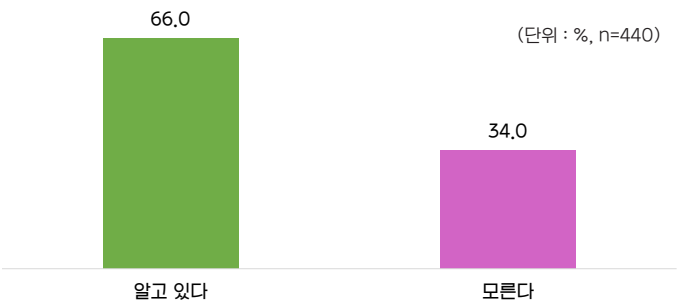
[그림 4] 체벌에 대한 인식



■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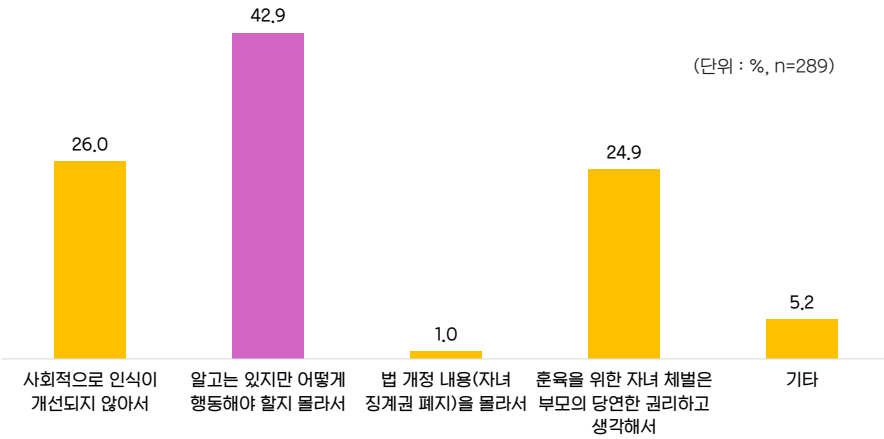
-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지
 - 조사대상 부모들의 66%는 ‘자녀징계권’이 폐지되어 가정 내에서 아이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34%는 ‘모른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5] 자녀체벌금지법 인지 여부



- 자녀에 대한 체벌이 줄지 않는 이유
 - 자녀체벌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부모들은 자녀 체벌 금지법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42.9%), ‘사회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서’(26.0%), ‘훈육을 위한 자녀 체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24.9%) 순으로 응답하였음. 즉, 아동을 부모가 통제하고 체벌할 수 없다는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훈육방법을 모르거나 여전히 자녀의 훈육을 위한 체벌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6] 자녀에 대한 체벌이 줄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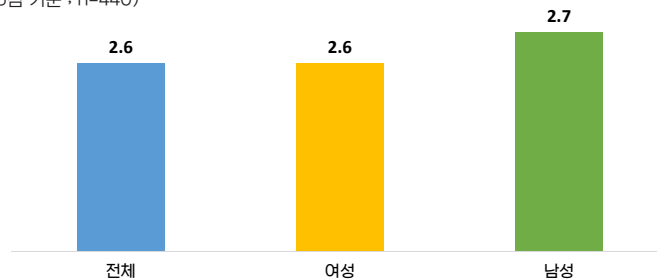


■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수준이 5점 기준 중 평균 2.6점 수준으로 평가하였음. 여성은 평균 수준에서, 남성은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평가하였지만, 부모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높지 않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7]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 5점 기준 : n=440)



3. FGI 결과를 통해 수렴된 제주지역 부모의 자녀양육 및 훈육 어려움에 대한 교육 요구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 조사대상 :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학령기 (조)부모 총 21명
- ▶ 일반적 특성
 - 자녀의 생애주기별로는 영아기 8명, 초등학령기 8명, 중고등학령기 5명으로 이 중 맞벌이 18가구, 외벌이 1가구, 무직 2가구이며, 성별로는 여성 16명, 남성 5명이 참여함

■ 자녀 양육의 어려움 호소

- FGI에 참여한 맞벌이 부모들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에 쫓기고 정서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놀아주기 등과 같이 자녀들과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점을 가장 아쉬워하였고 후회가 된다고 호소하였음
 - 자녀양육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도 한편으로는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고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았었다고 지적한 것임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양육의 힘듦으로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 역시 부모 역할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음

아이의 연령별 서로 다른 양육 지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한 시간 간격으로 울 때, 열이 날 때 등등
- 》 생후 1년 동안 우울증도 오고 아이도 잘 못 먹고 엄마인 저도 못 먹고 무서웠어요
- 》 교육을 받았어도 실제로 애들이 울고 보채고 동시에 하면 안절부절 당황스러워요
- 》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왜 느리지 하고 걱정이 돼요
- 》 아내 대신 3년 반 정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했는데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 》 집에서 돌봐주는 건 아빠인데 아이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서 슬퍼요
- 》 가정폭력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봤는데 아이 키우기 힘들고 잠을 거의 못 자니까 아내도 저도 맞벌인데 너무 예민해졌고 누가 건들기만 해도 터질 것 같았어요.
- 》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 중3 아이 마음은 알지만 오늘도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있어요

■ 올바른 훈육 및 문제행동 대처 방법 지원 필요

-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사춘기와 친구관계, 부적응 등 심리·정서적 발달에 대한 이해와 사례가 실제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참여방식으로 부모-자녀 간 상호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 운영 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특히,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언어 소통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게 되면 말로 설득을 하기 보다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행동을 할 경우에는 체벌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소연함.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을 돌볼 시간도, 편하게 식사할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를 참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부모 대상의 자기 돌봄과 행복한 양육 지원을 희망하였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다양한 부정적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필요해요!



- 》 징계권 폐지된 건 알지만 막상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겠어요
- 》 아이들 나이에 따라 어려움이 달라서 상황에 맞는 훈육 방법이 필요해요
-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엄해서 때리며 훈육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 》 사춘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이해도 못하겠고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 》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대화가 안되니까 답답하고 어려워요
- 》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고모도 가까이 지내서 아이 야단치는 것도 눈치 보여요
- 》 한국문화도 모르는데 오자마자 아이 낳고 키우니까 힘들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 》 부모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큰 문제가 되나요...
- 》 미혼모처럼 특수집단의 부모교육은 대상자들이 참석하기 어렵잖아요



4. 정책적 시사점

■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산 필요

- 본 연구 응답자들의 자녀체벌금지법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른다’ 응답비율이 34%이었고, ‘알고 있다’ 응답자 대상 자녀체벌금지법 이후에도 자녀에 대한 체벌이 줄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2.62점으로 5점 기준의 중간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자녀체벌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응방법 및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 등 부모교육 지원 강화는 물론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으로 여겨 체벌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징계권’ 삭제 등의 법 개선 내용에 대한 홍보 확산 역시 필요함

■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훈육방법 등의 자녀 생애주기별 부모역량 강화 교육 필요

- 예비부모부터 영유아, 초등학령기,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변화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긍정 훈육 방법,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족구성원 인권 존중을 위한 법률 교육(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등), 다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양육 사례를 적용한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 필요

-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버릇없이 굴거나 사춘기 등의 심리·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나 주변 지지지원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은 어렵다고 호소함.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고 생애주기별 양육 어려움을 돕는 내용으로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자녀의 발달단계와 그에 필요한 양육 정보는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들이나 육아에 지친 부모들 누구나 알고 싶은 욕구가 높았고, 부모 대상의 스트레스 해소, 양육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해결방법, 자기 돌봄 방법 등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았음
- 건강한 가족관계 확립과 비폭력 긍정양육 태도를 익힐 수 있는 자녀의 생애주기별 롤모델 발굴 및 확산은 물론 부모들 간의 공동육아 자조모임 활동, 우수사례 발굴, 네트워크 등 지원을 통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가족 구성원 간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가족 단위 가족학교 운영 필요

-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응하고 상호 존중의 가족관계 확립을 위한 교육은 현재 어머니 중심의 교육 혹은 단회기성 교육에서 가족단위의 가족학교 형태로의 확대가 필요함
- 특히, 가족학교(어머니학교, 아버지학교,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학교 등) 형태로 부모교육을 운영할 경우 최근 이슈와 관련된 주제별 내용을 구성하여 부모의 부모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부모교육의 접근성 및 효과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